
간호대학 학생들의 대학 입학전형 유형별 전공선택 계기, 진로정체감, 임상지원 희망여부에 대한 연구

College Major Choice, Career Identity, Intent on Entering the Clinical Field According to Admission Types: A Cross-Sectional Study of Nursing Students

6조: 김엘림, 김지현, 김혜문, 문지현, 배혜인, 이영서, 이은비, 이지은, 정은빈, 조영은

Elim Kim, Ji Hyun Kim, Hye Moon Kim, Ji Hyun Moon, Hye In Bae,
Yeong Seo Lee, Eun Bi Lee, Ji Eun Lee, Eun Bin Jung, Young Eun Cho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according to rolling admission versus regular admission types, investigating factors that led to choosing nursing as a major, career identity, and intent on entering the clinical field upon graduation.

Methods: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a survey comprised of three parts was administered to a convenience sample of 206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urvey tools consisted of Bo-Yeon Jeong's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 revised version of Diager Holland's 'My Vocation Situation' tool to measure career identity; a 2-question survey to measure intent on entering the clinical field. The data was analyzed via SPSS 23.0,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Results: Students admitted via rolling admission demonstrated higher internal and social motivation and a higher career identity value. A higher reality-accommodating attitude was seen in students admitted through regular admission.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in both groups when tested for intent on entering the clinical field.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baseline data that contribute to choosing nursing as a major according to admission types. A tool evaluating choice of major that targets nursing is required.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identify effective strategies that elevate career identity throughout the university experience. In addi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ied factors and their effects on clinical adjustment needs to be clarified.

Key word: college admission type, major choice, career-identity, clinical field, nursing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주최 2017학년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논문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교 시기는 Super[1]의 진로발달단계에 의하면 ‘전환기’, ‘시행기’이다. 이 시기는 전문직 직업분야에 대해 지식과 기술 및 자아개념을 확보 및 확립하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서 종사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편, 간호대학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이미 간호사라는 진로를 선택하고 간호대학에 입학했을 것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입학제도를 살펴보면, 간호학 전공의 선택이 간호사라는 진로에 대한 확신에 기반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간호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한국의 대학입학제도는 크게 정시전형과 수시전형으로 나누어진다. 정시전형의 경우 중요 평가요소가 수능점수이고, 수시전형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학생이 대학의 해당 학부 또는 학과에 부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지원자의 관심과 흥미 적성 등을 확인하여 해당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2]. 이는 성적을 주로 반영하여 지원하는 정시 전형에 비해, 수시 전형의 경우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생활 중 또는 입시 전 면접 등을 통해 해당 학과가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간호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은 전공불일치 및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선택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3]. 간호사는 특히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 윤리의식 그리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므로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진로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진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간호 전문직이 될 인재의 올바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간호대학 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확신과 임상진출 후 전문가로서의 자아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대학교육과정에서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4]. S대학교 간호대학의

학부과정 교육목적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창의성과 학문적 탐구능력을 지닌 전문직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간호사를 실제적으로 배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따라서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있어 초기선택단계인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두 번째로, 간호대학 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진로정체감이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진로결정의 결과인 간호대학 학생들이 현재 임상에 진출하고자하는 의사가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선택양상에 대한 연구[5], 간호대학 학생들의 입학전형 유형별 교육만족도 차이나[6] 학업 성취도 차이에 대한 연구[7]는 찾을 수 있었으나 간호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양상에 있어 입학전형 유형별 차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임상으로 진출하는 것은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므로 초기단계인 입학전형 유형이 각각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입학전형 유형별 진로선택계기, 진로정체감과 임상지원여부를 연구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의 인재의 올바른 육성과 임상간호사 진출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입학전형 유형별로 진로선택양상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S대 간호대학 학생들은 입학 당시 어떠한 요인들이 입학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입학전형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S대 간호대학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어떠하며, 입학전형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3) S대 간호대학 학생들의 임상지원 희망여부는 어떠한가?
 때하며, 입학전형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구에서 임상지원 희망여부는 임상간호사가 되기 위해
 졸업직후 병원에 지원서를 제출할 예정인가의 여부를
 통해 분석되었다.

3. 용어 정의

1) 전공선택 계기

전공선택 계기는 진로목표, 자기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환경(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전공을 선택[8]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전공선택 계기는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개인적, 사회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신념 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목표, 관심 및 소질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9]. 간호에 관한 진로정체감은 간호직에 대한 자기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10]. 진로정체감은 간호사로서의 진로를 확신하는가의 여부를 통해 분석되었다.

3) 임상지원 희망여부

임상지원 희망여부란,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가의 여부를 의미한다. 임상간호사란, 간호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간호사, 책임간호사 및 수간호사를 말한다[11]. 본 연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유형별 전공선택 계기, 진로정체감, 임상지원 희망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횡단적 단면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소재의 S대학교 간호대학 1~4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206명을 편의추출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 부적합한 기준(불성실 응답, 연구대상 조건에 미충족한 자)을 보인 대상자 9명을 제외한 197명(95.6%)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세부적인 입학전형 유형별 정보는 아래 Table 1과 같다.

3. 자료수집방법

설문조사는 2017년 4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에 걸쳐 S대학교 간호학과 전공수업 전 후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전, S대학교 간호학과 학년 대표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 및 방식을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5분 내외로 수업 시작 전에 배부해 수업이 끝난 후 회수하였다.

<Table 1> College Admission Types

Admission Program Category	Rolling Admission	Regular Admission
Regionally Balanced	• K-CSAT* (3 areas exceed level 2) • Submit Documentation** • Interview	Not applicable
Regular	• Submit Documentation* • Interview & oral exam	• K-CSAT* • High Schol Transcript only • Interview & oral exam → After 2014, 100% K-CSAT
Opportunity Equality Selection System	• K-CSAT* (2 areas exceed level 2) • Submit Documentation** • Interview → After 2014, K-CSAT not applied	• K-CSAT* (2 areas exceed level 2) • Submit Documentation** • Interview → After 2014, K-CSAT not applied

*K-CSAT: Korean College Scholastics Ability Test Grades

**Submit Documentation includes High School Transcript, Letter of Recommendation, Personal Statement

4. 연구도구

1) 전공선택 계기

전공선택 계기 척도는 정보연[12]의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사용하였다. 정보연[12]의 도구는 2개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동기’ 3문항, ‘사회적 동기’ 4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적 관련 문항 1문항을 추가하였고, 총 8문항간의 상관행렬을 기초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태영, 김윤경[13]의 ‘사범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전형 유형별 입학 결정 계기, 교직 지향성, 진로 선택 양상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여 ‘내재적 동기’, ‘사회적 동기’, ‘주위의 권유’, ‘현실 수용적 태도’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응답방식은 원 도구에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통이다’ 항목을 삭제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는 4점 Likert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중립 정도 없이 어느 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항목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인적 동기’ .76, ‘사회적 동기’ .5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 .865, ‘사회적 동기’ .605로 나타났다. ‘주위의 권유’와 ‘현실 수용적 태도’는 각 1문항으로 신뢰도를 구하지 못하였다.

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척도는 권윤희[14]의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권윤희[14]의 도구는 Holland, Diager[9]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을 Kim[15]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총 1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는 4점 Likert를 사용하였으며 6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환산하여 채점하였다(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말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가 .89, 권윤희[14]의 연구에서는 .88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9로 나타났다.

3) 임상지원 희망여부

임상지원 희망여부는 임상지원 의향을 묻는 문항 1

문항과, 임상지원 필수요건인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의향을 묻는 문항 1문항, 총 2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점을 명시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임상의 사전적 정의인 ‘병상에 임하는 일’과 병원의 종류를 나열한 참고사항을 설문지 하단에 추가하였으며 ‘예’, ‘아니오’의 응답방식을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였다. 통계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선택 계기 결정요인들이 입학전형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후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진로정체감과 입학전형 유형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 여부는 독립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임상지원 희망여부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입학전형 유형별 응답 분포 차이는 교차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197명 중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51.8%,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48.2%를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7 (13.7)
	Female	170 (86.3)
Age	≤20	111 (56.3)
	20<	86 (43.7)
Grade	Freshman	48 (24.4)
	Sophomore	55 (27.9)
	Junior	54 (27.4)
	Senior	40 (20.3)
Year of Admission	2012	6 (3.05)
	2013	9 (4.57)
	2014	43 (21.83)
	2015	41 (20.81)
	2016	50 (25.38)
	2017	48 (24.37)
College Admission Types	Rolling Admission	102 (51.8)
	Regular Admission	95 (48.2)

2. 입학전형 유형별 전공선택 계기 차이

간호대학 입학 선택 계기로 파악된 4가지 요인들에서 입학전형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수시,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내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현실 수용적 태도였다. 내재적 동기에서 수시 전형의 평균값이 2.94점으로 정시 2.0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사회적 동기에서 수시 전형의 평균값이 2.18점으로 정시 1.96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현실 수용적 태도는 정시 전형의 평균값이 3.40점으로 수시 전형 2.83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수시로 입학한 학생이 정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내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의 작용을 더 크게 받았으며,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수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현실 수용적 태도의 더 큰 영향을 받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Motivation for Major choice by College Admission Types (N=197)

Categories	M (SD)		t	p
	Rolling Admission	Regular Admission		
Internal Motivation	2.94 (.69)	2.08 (.73)	8.46***	.000
Social Motivation	2.18 (.55)	1.96 (.57)	2.73**	.007
Recommendation from Others	2.24 (.88)	2.29 (.90)	-.47	.640
Reality-accommodating Attitude	2.83 (.88)	3.40 (.75)	-4.88***	.000

* p<.05; ** p<.01; ***p<.001

3. 입학전형 유형별 진로정체감 차이

대상자의 입학전형 유형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성별, 나이, 학년, 입학전형 유형 중 입학전형 유형(t=3.917,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의 평균이 2.51점,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의 평균이 2.27점으로 수

시로 입학한 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다. 학년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1학년(t=2.435, p=0.19)과 2학년(t=3.247, p=0.002)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집단 모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학년과 4학년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Career Identity by Grade and College Admission Types (N=197)

Grade	M (SD)		t	p
	Rolling Admission	Regular Admission		
Freshman	2.60(.35)	2.34(.39)	2.44*	.019
Sophomore	2.59(.44)	2.25(.34)	3.25**	.002
Junior	2.43(.42)	2.28(.65)	0.99	.325
Senior	2.44(.40)	2.18(.39)	2.01	.052
Total	2.51(.41)	2.27(.46)	3.92***	.000

* p<.05; ** p<.01; ***p<.00

4. 입학전형 유형별 임상지원 희망여부 차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수시전형에서 91.18%, 정시전형에서 93.6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졸업 후 임상에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수시전형에서 88.24%, 정시전형에서 88.4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국가고시응시여부와 임상지원 여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Intent on Entering the Clinical Field by College Admission Type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χ ²	p
		Rolling Admission	Regular Admission		
Interest in Taking K-NCLEX	Yes	93 (91.18)	89 (93.68)	0.440	.507
	No	9 (8.82)	6 (6.32)		
	Total	102 (100)	95 (100)		
Interest in Entering Clinical Field	Yes	90 (88.24)	84 (88.42)	0.002	.968
	No	12 (11.76)	11 (11.58)		
	Total	102 (100)	95 (100)		

IV. 논의

본 연구는 S대 간호학과 학생의 전공선택 계기와 진로정체감, 임상지원 희망여부가 입학전형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전공선택 계기를 살펴보았을 때,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내재적 동기에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더 높은 현실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사범대학생에 대한 선행연구[13]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는 정시 전형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한 경우 본인의 적성보다는 성적을 고려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 반면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정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사회적 동기의 더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사범대학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형별 선발 특성에 따라 고찰해볼 수 있다.

우선 수시 전형의 경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S대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시 모집 안내서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살펴보면 적성 및 흥미와 같이 내재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아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지원자의 특성이나 성향이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자신이 학과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학과에 지원하기 전부터 학과특성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는 등 학과에 부합하는 내재적 요소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다.

반면 정시 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내적 성향이 반영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점수가 선발의 큰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수능 성적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입학 지원을 하게 된다. 정시 전형의 학생이 낮은 내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및 높은 현실 수용적 태도를 보인 이유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가 나온 후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특성이나 전공에 대한 자신의 적합성을 고려할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자신의 점수로 지원 가능한 학과 범위 내에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임상간호사의 배출은 간호대학 교육목표의 일환이

므로 간호 관련 직종을 추구하고 역량 있는 임상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선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간호직에 종사할 인재로서 현실 수용적 태도보다는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기반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간호대학 선택계기와 관련된 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수시 전형이 학생의 진로와 전공적합성, 장래 목표를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입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원자의 진로 관련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의 특성을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여 간호학과 학과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입학전형 유형별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보았을 때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적성 및 개인적 성향은 무시된 채 성적에 따르거나 주위의 권유에 따른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공에서의 적응에 실패하고 방황하게 된다[12]. 즉 본 연구에서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수시 전형에 비해 정시에서 내재적 동기보다는 현실 수용적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의 반영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진학동기 중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진로정체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던 선행연구 결과와도 상통한다[16].

진로정체감을 학년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입학전형 유형별 차이는 1, 2학년에서 유의하였고 3, 4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입학전형 유형별로 다른 수준의 진로정체감을 가지고 입학을 하더라도 간호대학에서의 학업경험, 전공공부, 임상실습을 통하여 두 집단 모두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결과라고 사료된다. 한편, 학년별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보았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간호대학 학부생으로서의 학업 및 실습경험이 진로정체감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의 평균이 Likert 4점 척도의 중앙값인 2.5점을 넘긴 집단은 수시입학 전형유형이 2.51점으로 유일하였고 이 값 또한 중앙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간호대학 학부교육은 학생들의 진로확신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간호전공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내포하는 내재적 동기가 수시 전형에 비해 낮은

정시 전형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교육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입학전형 유형별 국가고시 응시여부와 임상지원 희망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두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졸업 예정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에만 간호사 면허·자격증이 발급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을 졸업할 계획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 결과물로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모두에서 90%가 넘는 비율로 국가고시에 응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비율 또한 비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입학전형 유형별 임상지원 희망여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도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간호직에 대한 추구와 확신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졸업 후 병원 취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간호학과 특성과 관련된 현실수용적 태도가 함께 적용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것과 진로정체감이 개인의 적응 및 적합한 결정을 위한 수단이 되어 직업 선택과 더불어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17],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임상 지속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대학 시기를 넘어 임상에서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 개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서 다른 간호대학 사례로 확장하여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전공선택 계기와 관련하여 개발된 척도가 위의 척도가 유일하여 신뢰도가 낮음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해당 도구에서 조사한 ‘주변의 권유’, ‘현실수용적 태도’ 영역의 경우, 문항이 한 문항이기 때문에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실습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의 통일성 확보 역시 제한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들의 입학에 있어 영향요인과 대학 수업을 진행함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지원 희망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 선발 및 수업과정의 운영과 관련한 방향설정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 유형별 간호학과 전공선택 계기를 살펴보았을 때, 수시 전형 입학생이 내재적 동기($t=8.46, p=0.00$), 사회적 동기($t=2.74, p=.007$)에 있어서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정시 전형 입학생은 현실수용적 태도에 있어서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4.85, p=.000$). 주변의 권유 항목은 두 전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t=-.469, p=.640$). 진로정체감 차이를 입학전형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수시 전형 입학생에 있어서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3.917, p<.001$). 반면 이를 학년별로 분석하였을 때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가고시 응시여부 및 임상지원 희망여부에 있어서 두 전형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간호대학 학생의 특성에 맞는 타당도가 높은 도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며 이들의 전공 선택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없어 신뢰도가 낮음에도 해당 척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두 번째로 정시 전형에 있어서도 수시전형과 같이 지원자의 진로 관련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 전형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수시의 자기소개서와 같이 학생이 자신을 돌아보고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숙고의 과정을 제공하여 향후 입학하여 전공에 대한 이질감 및 부적응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보다 간호학과 특수성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간호대학 학부과정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학부과정 중에 본 연구와 같이 학생들의 전공 관련 사고와 고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사정하고 이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진로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임상실습 경

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교육 방법의 효율성, 문제점에 대해 따져보는 연구를 진행하여 학부 교육과정이 간호대학 학생이 장차 간호사로서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정해나가야 한다. 또한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대학을 졸업하여 임상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임상 지원 희망 여부를 묻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으로 현재의 의사를 묻는 것이다. 입학 전형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발생한 내재적 동기, 사회적 동기, 진로 정체감 등의 요인이 향후 실제 임상 지원 여부와 임상에서의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Super, D.E.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Row;1957
2. Kim, Seung-Nam.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College Admission Officer System in Kore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3;26(2): 163-183.
3. Lee, Kyoung-A, Kim, Jinhyun.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5;12(1): 42-49
4. Cho, Hee, Lee, Gue Young.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6;20(2):163-173.
5. Ko, Young-Ji, Kim, In-Kyu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62-71.
6. Lee, Du-Hyun.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the Students'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Types. [dissertation].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9. p. 1-112
7. Kim, Bo-na, Kim, Ee-gyeong. The Difference of Student Adaptation Level to University Life Depending upon Admission Method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5;21(3):5-25.
8. Lee, Gun-Nam, Jyung, Chyul-Young.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9;41(1):87-110.
9. Holland, J. Holland, J.E.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7;24(5):404-414.
10. Sung, Ji-A, Bang, So-Youn, Kim, Soon-Yi.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012;2(2):29-38
11. Sohng, Kyeong Yae, Noh, Choon Hee.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26(1):94-106.
12. Jyung, Bo-yeon.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master's thesis]. Suwon: Kyonggi University; 2010. p. 1-48
13. Kim, Tae - Young, Kim, Yoon - Kyoung. A Comparative Study of College of Education Students Based on Their Different University Admission Typ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4;31(2):315-344
14. Kwon, Yun-Hee, Kim, Chung-Na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2; 13(2):216
15. Kim, Bong Whan, Kim, Kay Hy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9(1):311-333.
16. Jung, Jeom Suk, Jeong, Mi Jo, Yoo, Il Young.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27-36.
17. Kwon, Kyung-Nam, Choi, Eun-Hee.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0;24(1):19-28.